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2호 【루계 제25976호】 주체107(2018)년 4월 1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 과학연구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박광호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임철웅동지, 조연준동지, 리만건동지, 김여정동지, 리병철동지,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정경택동지, 노광철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인 김정각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가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개회사를 최태복의장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봉주대의원이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이 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하여 장철대의원, 김영철대의원, 김광남대의원, 리종국대의원, 윤정국대의원, 김봉영대의원, 김윤실대의원, 최영삼대의원, 송춘섭대의원, 최영덕대의원, 전학철대의원, 김기성대의원, 김광호대의원, 변원철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일으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토론을 통하여 지난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현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황병서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김기남대의원, 리만건대의원, 김원홍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11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당정치국위원인 반제련대성비서 마리아 헤레싸 빤또하 바르게뇨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깔레그롭인쇄소에서 3월 27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딸리아의 공산당이 3월 28일 로마 까를로 델리니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대공보》, 《문회보》,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아의 따쓰통신, 인터네트TV 《미르24》, 인터네트신문들인 《에지나야 꼬레야》, 《포룸》, 젠따루, 인터네트통신 레그눔, 인터네트잡지 《렘쉬쉬》,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오우선 뉴스 포인트》,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만마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마》, 일본의 교도통신, 영국의 BBC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기네의 통신,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남아프리카신문 《프레토리아 뉴스》, 에질트신문 《에질션 메일》, 미국의 UPI통신,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진행

1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김정각대의원, 박광호대의원, 태종수대의원, 정경택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된것과 관련하여 박태성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정영국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김수길대의원, 박철민대의원, 김창엽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직무변동된것과 관련하여 박태덕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량정훈대의원, 김명길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투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대의원의 보고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을 쳐물리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내각은 지난해에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따라 전력생산토대를 확대강화하고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며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실현하는데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조직진행하였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수행하였으며 2.8직동청년탄광,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정양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하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맏아들인 금속공업부문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완공하여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전력공업부문에서 새로운 발전능력조성을 위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력발전설비증설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화학공업부문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높은 질소비료생산능력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 적막법가성소다생산공정을 완성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가방, 신발,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경공업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경공업제품들을 개발생산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제시한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나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우량종자를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농사실풍을 세차게 일으켜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을 크게 늘였으며 과학과수의 기치높이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건설의 대번영기의 요구에 맞게 려명거리를 현대적인 거리형성의 본보기, 표준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우고 새로지구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켰으며 해산-삼지연철길공사, 고암-압촌철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였습니다.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완수하였으며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여 먹는물생산능력과 오수정화능력을 높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실현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과학교육의 해인 지난해에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평양교원대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새 교사건설과 다기능화된 교실꾸리기를 적극 내밀어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크게 일신시켰습니다.

보건부문에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제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체육부문에서 여러 국제, 국내체육경기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차넘치게 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완전적인 해인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악랄한 제재압살책동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총진군에 떨쳐나선 천만대중에게 자력자강의 억센 신념을 새겨주시였으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혁명적대응전략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비범한 사상과 령도,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지난해 내각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제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들인 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희생적인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부족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담당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3면으로 계속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에 대하여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의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할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경제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제끼겠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화력발전소들의 석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증설된 발전설비가동을 정상화하여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태양빛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워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교차생산조직을 과학적으로 하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짜고들며 새로운 전기절약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강도높이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채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하여 올해 석탄생산목표를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새 탄광, 새 갱, 새 구역개발에 힘을 넣어 더 많은 탄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우리 식의 주체적인 철생산체계를 더욱 완성하면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강질을 높이고 강종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전력, 철정광, 무연탄 등 원료, 연료, 자재,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며 흑연, 전극, 내화물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비료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 농업부문에 질소비료를 영농공정에 앞세워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비날론, 가성소다, 염화비닐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보장하겠습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 하고 여러가지 촉매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는것과 함께 순천린비료공장의 기본생산공정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희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기계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광산들과 제련소들에 대한 전력보장대책을 세우고 헌존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선진적인 채굴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광물과 유색금속생산을 늘어나가겠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기관차와 화차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삼지연군꾸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물동을 책임적으로 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철도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전기기관차, 화차생산과 수리를 계획대로 보장하며 새형의 지하전동차를 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겠습니다.

내각은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 수산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지방산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다그쳐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우량종자들과 벼강화재배, 강냉이무지재배를 비롯한 다수확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습니다.

우량품종의 젖짐승마리수와 먹이작물재배면적을 늘이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과일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고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겠습니다.

수산부문에서 자체의 힘으로 고기배무이와 수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현대적인 어로설비들과 항해 및 통신설비들을 갖추며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려 수산물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는것과 함께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을 사회주의표준군, 본보기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제기일에 끝내고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국토관리부문에서 나무심기와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며 고속, 관광도로들의 기술개건과 보수를 집적으로 하고 주요강하천들에 대한 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한W의 전기, 한방울의 연유, 한g의 석탄이라도 최대한 절약하며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과 생산자대중의 지혜를 발동하여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부문별과학기술보급기지들과 과학기술보급실, 전자도서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의 선진과학기술을 잘 알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올해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작전안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능숙한 작전과 지휘로 그 집행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밀고나가겠습니다.

조건이 어렵고 애로와 난관이 많다고 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둘러맞추는 식으로 적당히 하는 현상, 소방대식일본새, 구태의연한 사업태도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혁명적으로 전개하며 안일해이한 사상관점을 철저히 극복해나가겠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기업관리에서 원가보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주의본태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규정을 부단히 보충갱신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지 은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서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보건부문의 의료봉사수준을 개선하며 대중체육활동과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창조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각 방면에서 묵원하고 적극 발양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은 경제사령부로서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당의 혁명적대응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고 치밀한 경제조직사업과 완강한 실천으로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서 한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의 보고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받들어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7%로 수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4.9%로 장성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활성화하고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5%로 수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8%로 집행되였습니다.

나라의 군력강화에 지출총액의 15.8%를 우선적으로 돌림으로써 미국의 핵위협과 모험적인 불장난을 제압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민경제발전에 지출총액의 47.7%를 돌리였습니다.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8.5%로 늘여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를 완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중요부문과 인민생활향상에 전해에 비하여 105.2%로 늘어난 자금을 지출하여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기계, 경공업부문의 주체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추동하였으며 특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투자의 집중과 효과적리용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건설부문에 전해에 비하여 102.6%로 투자를 늘임으로써 용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하며 도들에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지출총액의 36.3%를 돌려 교육환경과 의료봉사조건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당의 교육중시, 보건중시정책을 관철하고 체육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한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제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투철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구태의연한 일본새에서 벗어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나라살림살이를 바로 해나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요구에 맞게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재정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3.2%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2.5%로, 국가기업리익금은 103.6%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5.3%를 차지할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익금은 100.9%, 부동산사용료는 101.8%, 사회보험료는 101.2%, 재산관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5%, 기타수입은 100.8%, 경제무역지대수입은 102.5%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9%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이루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1%로 장성하게 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4.9%로 장성시켜 지출총액의 47.6%에 해당한 자금을 돌리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7.3%로 늘임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받아들여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며 원료, 자재,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력, 금속, 석탄, 화학, 기계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에 대한 지출을 105.5%로 늘여 자립적인 동력기지를 일떠세우고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삼지연군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보장을 104.9%로 늘이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교육부문에 105.9%, 보건부문에 106%, 체육부문에 105.1%, 문학예술부문에 103%로 투자를 늘임으로써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실시와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리게 됩니다.

올해에도 제일통로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줌으로써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갈기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나가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보선된 국무위원회 위원들

국무위원회 위원 김정각동지

국무위원회 위원 박광호동지

국무위원회 위원 태종수동지

국무위원회 위원 정경택동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

장 철 대 의 원

저는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지난해의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의 투쟁과업이 명확히 제시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지난해 국가과학원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요연구목표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가치있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이 과정에 연구사들은 재료, 기계, 조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에서 제기된 현대화된 치차모서리가공반과 수십종의 설비, 장치들을 우리 식으로 제작하여 뜨락또르생산의 국산화비중을 98.7%로 보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증설전투장에 파견된 열공학연구소와 자동화연구소 과학자들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소-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연구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일군들이 연구과제책임자가 되여 한개 대상씩 맡아안고 연구기관들의 협동과 경험교환 그리고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350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연구개발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킨다면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봉쇄책동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과학원사업에서는 결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군들이 당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늘 사색하고 탐구하며 혁신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성과를 기대할수 없고 이미 이룩한 성과도 공고히 해나갈수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연구력량을 집중하여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철생산기술의 완성과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주인답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원료,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중요연구과제들과 첨단과학연구목표들을 올해안으로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과학자들이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에네르기문제, 재료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목표와 연구방향, 계획을 바로세워 힘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저는 국가과학원을 과학기술의 중심, 중추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과학기술이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를 주도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책략을 바로세우며 완강하게 실천하여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가겠다

김 영 철 대 의 원

지난해 당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전력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고 전력생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못하여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놓고 우리는 일군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틀어쥐고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따라세우는 일본새, 투쟁기풍을 발휘해나가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수행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발전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힘찬 투쟁속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련합기업소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100여건의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전력증산에서 걸리고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금수봄프날개를 자체로 만들고 그 기술적성능을 훨씬 개선하였으며 보이라관체세척 및 부식방지제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국가전력계통주파수에 맞게 수십대의 석탄뽑분쇄기 주감속기를 전부 개조하였으며 전력소비가 적으면서도 생산적효과성이 큰 뽑유도로 한기를 더 제작설치하여 질좋은 강뽑을 자체로 보장함으로써 미분탄생산량을 늘이였습니다.

지난해 련합기업소에서는 련관단위들과 합심하여 발전설비증설공사를 적극 다그침으로써 1호발전기에서 산소-무연미분탄착화기술에 의한 무종유착화에 성공하였으며 북창공업대학을 보다 훌륭히 일떠세워 기술자들을 자체로 양성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인재를 중시하며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 때 오늘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발전기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겠습니다.

발전설비들의 보수주기를 옳게 정하고 엄격한 검사체계를 세워 올해안으로 여러대의 발전기들에 대한 대보수와 중보수를 끝내며 예비설비, 예비부속품조성사업을 생산에 앞세워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3호발전기에 대한 개건보수공사를 다그치며 선진기술과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보이라의 연소효률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일군답게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략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전력증산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키겠다

김 광 남 대 의 원

우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에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워 무연탄에 의한 우리 식의 철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철강재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단순히 아금공정을 하나 일떠세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김철로동계급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내세웠습니다.

용광로에 대한 기술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137차의 기술협의를 하면서 45일만에 수천매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였으며 로운영을 위한 기술전습도 동시에 밀고나갔습니다.

경험이 있는 일군들과 젊은 기술자들로 건설지휘력량을 꾸렸으며 용광로의 로체건설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장되여있거나 수리정비할수 있는 설비와 장치물, 철구조물들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그에 맞게 설계를 개조하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갔습니다.

매주 경험교환회를 열고 용접, 제관정기를 비롯하여 10여차의 경쟁을 조직하였으며 그 과정에 강철구조물제작과 조립속도를 5배로 높이고 8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습니다.

중량이 수십t이나 되는 제진설비의 설치가 난문제로 제기되였을 때에도 높이가 50m 되는 탑식키중기를 분해하지 않고 22시간만에 통째로 옮기는 기록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220일만에 웅근 하나의 강철공장과 맞먹는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웠으며 올해 1월 16일 첫 쇠물을 뽑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우리모두의 운명을 건 결사전이며 그 길에서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끝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용광로건설일정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기능공양성을 예견성있게 하지 않고 산소분리기들의 가동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지 못함으로써 선철생산을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함을 놓고 무슨 일에서나 당의 정책적요구를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지 못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만리마시대가 요구하는 높이에 올라설수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습니다.

올해 기업소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을 정상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면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류동층가스발생로를 완공하여 우리 나라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를 확립하는것과 함께 쇠물정련기술을 비롯한 선진적인 아금기술을 받아들여 강철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과학기술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모든 경영관리를 과학기술적담보밑에 책략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현실에서 실제적인 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새겨안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혁신적으로 짜고들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철생산의 주체화를 한전무결하게 실현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더 많이 개발생산하겠다

리 종 국 대 의 원

저는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정형이 정확히 총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에 맞게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시되였으며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지난해 기계공업성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기술력량과 현존설비, 우리의 자원으로 세계적수준의 새 제품을 개발하며 여러가지 기계제품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성에서는 일군들이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생산현장에 지휘처를 정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과 새 제품개발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습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현존생산토대를 최대한 리용하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에 힘을 넣어 현대적인 전문카공설비가 없이는 생산할수 없다던 부분품도 우리의 설비로 생산함으로써 새형의 80hp뜨락또르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었습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도 파료보링반을 비롯한 가공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완비함으로써 화력발전소의 분쇄기용대치차주강품생산을 늘이였으며 발전설비들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다같이 변성시켜 측정할수 있는 새형의 일체식전압-전류변성기를 개발완성하였습니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새 제품개발에서도 전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이 되게 하는데 힘을 넣어 현대적인 우리 식의 콩크리트혼합물압송뽐프를 개발완성하여 건설에서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기계공업성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43.6%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기계공업부문의 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부문별균형을 보장하여 기술적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 식으로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어 80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 《충성-122》호뜨락또르생산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계제품들의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능과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설계쟁신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세계적수준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으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어 대중의 자강력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새로운 기계제품생산성과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촉매생산기지와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 화학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겠다

윤 정 국 대 의 원

지난해 우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질소비료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설비보강과 촉매를 자체로 생산하여 주체비료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기업소에서는 가스발생로와 변성가스탑류탑을 비롯하여 10여종에 수십대의 비료생산공정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설비들의 제작에서 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능이 높은 제관공들과 용접공들로 돌격대를 뭇고 전투현장에서 일군들과 설계원들, 돌격대원들이 집체적지혜를 합쳐 설비제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창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이 나와 설비제작에서 걸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지난해 10월까지 설비제작목표를 전부 달성하고 생산공정에 도입하여 만수성가스생산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었습니다.

촉매연구소 연구사들은 촉매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앞세워 제촉매를 촉매생산원료로 리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비료생산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생산장성의 에비는 과학기술에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전압과 주파수의 파동으로 생산에서 애를 먹고있으면서도 우에 제기나 하는것으로 그쳤으며 무연탄과 유연탄이 부족하여 비료생산에 영향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놓고 우리는 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투철한 각오와 주인답고 창조적인 일본새가 없이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질소비료최고생산년도실적을 돌파할수 있는 설비능력을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비료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겠습니다.

촉매생산기지와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화학제품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혁신적으로 진행하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화학공업기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도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겠다

김 봉 영 대 의 원

지난해 우리 함경남도에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잠재력과 예비를 총발동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며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 중심을 두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도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새로운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미 운영하고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의 타빈과 려자체계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장진강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의 발전기에 새형의 타빈날개를 도입하여 전력증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현대화를 진행하여 260여대의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이빠진 공정들을 완비함으로써 생산능력을 1.3배로 높였으며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51%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무래산세멘트공장과 함흥강철공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영방법을 받아들여 전해에 비하여 2만t의 세멘트와 300여t의 강재를 더 생산함으로써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도자체의 힘으로 여러대의 기관차와 객차, 철도역들을 대보수하고 2만여개의 콩크리트침목을 새로 깔아 수십km구간을 일신시켰습니다.

도에서는 기업체들에서 경영활동을 짜고들면서 상업봉사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 높이 세운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03.7%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지출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도에 마련된 경제적잠재력과 과학기술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적들의 그 어떤 제재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도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도의 경제사업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사업을 로력집약형, 전기집약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지 못하고 건물이나 다시 짓고 설비들을 개조하는것으로 그침에로부터 많은 로력을 랑비하였으며 건설건재생산단위들의 설비개조와 생산공정꾸리기를 계획대로 내밀지 못하여 생산기지들이 은을 낼수 없게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함흥청년1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무조건 결속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도의 특성에 맞게 산나물, 산열매, 바다나물 그리고 유휴자재를 비롯한 원료원천동원과 원료기지들의 관리운영을 더욱 짜고들어 시, 군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광명성제염소에서 소금생산을 더 늘이겠습니다.

건재생산단위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에 많은 세멘트와 강재를 증산함으로써 마전유원지 2단계공사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한개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빈틈없는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도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국내원료와 자재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

김 윤 실 대 의 원

지난해 우리 류원신발공장에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결속하면서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 중심을 두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신발공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운동신발의 품종을 다양화할수 있는 다품종소량생산체계를 확립할 목표를 세우고 설비들을 보강하면서 전반적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였을뿐아니라 통합생산체계와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능력을 2배로 높이였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발동하여 새로운 설비들을 창안제작하면서 평양신발기계공장의 기술자들,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재단직장에 신흥장식공정을 꾸리고 전력소비가 적으면서도 자동화수준이 높은 제화흐름선을 형성한것을 비롯하여 수백대의 설비를 자체로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할수 있다는 초립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신발창생산에 창안도입하여 신발창의 무게를 훨씬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며 국내원료와 자재를 적극 리용하고 도안창작을 생산에 철저히 앞세워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수백종의 신발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은 133.7%, 국가예산납부계획은 127.1%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 만든 신발들이 종류도 많고 모양도 다양하며 색갈도 멋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돌아가는 훌륭한 경공업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류원신발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이라는 최상의 평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과정에 우리는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생산활성화의 길도 열리고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얼마든지 따라앞설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에서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생산과 경영활동을 잘 짜고들어 공장을 현대화한것이 실지 은이 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현대화된 생산공정을 우리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만가동시킴으로써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야심을 가지고 접착제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공정과 신발의 품종을 늘이기 위한 각종 신발창형타생산공정을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기어이 완성하겠습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사람들의 년령과 직업 그리고 계절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발들을 적극 개발하며 공장의 경영활동을 책략적으로 짜고들어 질좋고 다양한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의 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진취적인 일본새, 만족을 모르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투쟁기풍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당의 경공업정책을 결사관철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다수확우량품종들을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겠다

최 영 삼 대 의 원

지난해 우리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는 당의 과학농사방침의 요구대로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기풍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국협동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농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농장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준비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기술학습규률을 엄격하게 세우고 농장의 관리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이 농업과학기술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낼수 없게 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보급실과 작업반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살림집들이 집중되여있는 마을복판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 선진농업과학기술자료들을 현시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늘 농업과학기술에 대하여 관심하는것을 습성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장의 질지별토양조건을 따져가며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다수확우량품종들을 전체 경지면적에 배치하였으며 수천t의 물거름과 유기질복합비료를 두벌농사포전과 초기생육조건이 나쁜 논과 밭에 정보당 10t씩 더 내여 지력을 높이였습니다.

농업과학자들과 함심하여 종자케이자및처리방법과 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방법을 비롯한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고 천연생물활성제와 같은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적극 받아들여 풍리한 낟씨조건에서도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보장하였습니다.

기술력량과 농장원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깊은층 비료주는 작업을 기계화하고 농장의 실정에 맞게 트락토르에 4련보습대신 7련보습을 설치하여 연유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였으며 수십대의 모내는 기계를 큰모내는 기계로 개조하고 여러가지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1 400여정보의 모내기를 농장자체의 힘으로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낸것을 비롯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였습니다.

로전담당책임제를 농장의 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하는것과 함께 관리위원회가 농장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게 하여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과학농사의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투쟁속에서 지난해 농장에서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은 128%, 알곡수매계획은 108%로 수행하였으며 농업부문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올해 과학농사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다수확우량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며 두벌농사면적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이겠습니다.

능력이 큰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상반년안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벼수확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일군답게 대오의 기수가 되여 당의 농업정책을 한치도 어김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땅로써 강대한 우리 조국을 받들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겠다

송 춘 섭 대 의 원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수산부문을 추켜세워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성에서는 지난해에도 당의 수산정책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물 비롯한 일군들이 고기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고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조건에 말려들면서 과학적이며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를 하지 못하였으며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수산부문의 실태를 놓고 우리는 실직을 내겠다는 주관적욕망만 앞세우면서 과학적인 타산, 능동적인 작전과 지휘를 안만침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심장에 쪼아박고 과학기술을 앞세우며 내부예비를 총동원한다면 수산부문앞에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동, 서해수산사업소들에서 《황금해》호제련의 240hp이상 고기배들을 포함한 수십척의 고기배를 자체로 무었으며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방도를 찾은것을 비롯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수산사업소들과 수산부문공장들의 현대화를 위한 여러 공사들을 진행하고 지방자재를 동원하여 바다가양식면적을 늘이는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수산물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겠습니다.

배무이와 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지표별로 계획화하여 생산보장하며 배수리20일제를 확립함으로써 고기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겠습니다.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며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계와 전방향어군탐지기를 상반년안으로 완성하여 과학적인 어로전을 적극 벌릴수 있게 하겠습니다.

명태양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순환식양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 100만마리이상의 새끼명태를 바다에 놓아주며 자체의 힘으로 양식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장하여 바다나물과 조개류를 생산하겠습니다.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봉금포수산기지건설과 중앙양어연구소현대화공사를 제기일에 완공하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상건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다그쳐 끝내겠습니다.

저는 수산전선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중요한 전선이며 어로전투는 곧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제도보위전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올해 수산부문앞에 제시된 목표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대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홍건도전역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겠다

최 영 덕 대 의 원

지난해에 우리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모든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홍건도간석지 2단계 3구역 1차 물막이공사와 뭍지와 섬을 련결하는 제방공사를 결속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기업소에서는 수십리구간에서 제방공사가 진행되는데 맞게 4개의 작업구역에 현장지휘부를 꾸리고 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갔습니다.

15개의 굴진작업반을 조직하고 20만산대발파를 비롯한 100여차의 발파를 진행하여 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흙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작업장마다 수리기지를 꾸리고 이동수리대를 무어 현지에서 고장난 설비들을 제때에 수리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40여종에 5 000여점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륜전기재들을 정상가동시켰습니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새로운 해안정보체계를 도입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공사속도를 높이였으며 큰기계공장에서 만들던 배수문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제작설치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적의지와 완강한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진척시켰으며 제방도로에 대한 보수관리를 짜고들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건설자들을 위해 먹는물보장과 세목장운영을 정상화하였으며 종업원세대들의 식량과 땔감을 원만히 보장하고 2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홍건도간석지 2단계 3구역의 제방공사와 1구역의 련결제방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인민경제계획을 건설작업액으로 106%, 공업생산액계획은 131.6%, 국가예산납부계획은 158%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을 때 문제해결의 열쇠도 찾을수 있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습니다.

기업소사업에서는 결함도 나타났습니다.

제방공사에 앞서 지층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건설자들이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주관적욕망만 앞세운다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습니다.

올해 기업소앞에는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의 제방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련이어 2구역의 제방공사에 진입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굴진작업에 힘을 넣어 흙과 막돌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륜전기재들을 만가동시켜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건설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력과 자재,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앞당기겠습니다.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현장합숙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며 후방기지운영을 활성화하고 제대군인살림집건설을 다그쳐 끝내겠습니다.

저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완강한 실천으로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의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까지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겠습니다.

굴진을 앞세우고 갱내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겠다

전 학 철 대 의 원

우리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두번째 해인 지난해에 석탄생산계획은 104.2%, 공업생산액계획은 117.9%, 국가예산납부계획은 123%로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득장탄광기계공장의 기술개건사업에 힘을 넣어 갱내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며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탄광기계공장에 현대적인 대형선반들을 갖추는 한편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기술개건사업을 진행하면서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제작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라선형물고리식압축기를 완성하여 굴진속도를 높이였으며 우리 식의 축전지식교류전차를 제작도입함으로써 많은 자재와 연유,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석탄운반능력을 1.5배로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석탄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수천㎥의 동발나무를 해결하였으며 류음동발에 의한 광록식채탄법을 비롯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굴진소대별, 채탄중대별 능력이 큰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상반년안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벼수확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일군답게 대오의 기수가 되여 당의 농업정책을 한치도 어김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땅로써 강대한 우리 조국을 받들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며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겠다

김 기 성 대 의 원

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지난해의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물자들의 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청진철도국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을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년간화물수송계획을 106.5%, 공업생산액계획을 210.2%로 초과수행하였습니다.

국에서는 전반적인 사령지휘구간들에 한소련소자에 의한 통신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차량과 설비들을 제때에 신속히 장악하고 지휘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철길강도를 높이는것을 철도현대화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많은 콩크리트침목과 철길고착품 등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해산—삼지연철길건설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대중의 정신력과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할 때 점령 못할 요새도 극복하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철도국사업에서는 결함도 있었습니다.

당면한 석탄생산에만 치우치면서 굴진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작전을 바로하지 못하여 생산준비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나라난 결함들을 놓고 우리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설계해나가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일거리에 몰두하면서 소방대식으로 일한다면 무슨 일에서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됩니다.

올해 우리 련합기업소앞에는 지난해보다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모든 사업을 석탄생산에 집중시키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탄광기계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굴진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우리는 능률높은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기계화비중을 2배이상으로 높이며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언제나 혁신적인 안목으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높은 석탄생산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무비루스우량종자생산체계를 세우고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여 올해 감자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르겠다

김 광 호 대 의 원

지난해 대홍단군에서는 무비루스화된 다수확우량감자종자생산을 늘이고 지력을 높이며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감자농사를 잘하는것은 대홍단군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군의 기술력량을 적극 발동하여 감자종자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다수확우량품종의 재종면적을 늘이고 각종 비루스의 전염을 막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감자농사에 필요한 무비루스화된 다수확우량종자들을 생산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이미 마련되여있는 생산적잠재력이 최대한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유기질복합비료와 린세균비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많은 대용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정보당 5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기계작업소의 종주파유도로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였으며 륜전설비와 농기계들을 수리정비함으로써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감자농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감자포전들에 배치한 포전관리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병해충예찰과 예방구제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역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의 피해를 막고 좋은 감자작황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군에서는 지난해 맡겨진 알곡생산과 수매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농업정책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면 오늘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감자대풍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높이 세운 감자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대홍단식과학농법을 틀어쥐고 군의 기상기후조건에서 최고수확을 낼수 있는 무비루스화된 우량종자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다수확재배면적을 늘이겠습니다.

지력을 높이는 문제를 정보당 수확고를 올리기 위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불거름을 비롯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최고의 소출을 낼수 있는 감자생육조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력자강의 기치높이 군의 실정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생산리용하며 각종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기대들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군농사의 종합적기계화를 보다 원만히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것을 심장에 쪼아박고 감자농사에서 최고생산년도를 돌파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감자생산성과로 빛내이겠습니다.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화력탄생산을 맡은 탄광들에 필요한 갱목을 원만히 보장하겠다

변 원 철 대 의 원

지난해 우리 위원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은 108%, 공업생산액계획은 114.7%, 국가예산납부계획은 132%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지난해에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조건이 유리한 겨울철기간에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을 작업소, 소대들에 내려보내여 생산과정과 실적을 생산자들과 함께 책임지도록 하면서 작업소별, 소대별, 기대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으며 전투목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총화함으로써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고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갔습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통나무사이나르기에 연유를 전혀 쓰지 않는 통쏘이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생산준비전설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으며 생산소대들 더 늘여 통나무생산에 로력을 집중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직장의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려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수리보수를 제때에 보장하여 가동률을 1.5배로 높였으며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통나무를 중단없이 운반하였습니다.

통나무를 베여낸 자리에 립능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해마다 10.5의 콩을 생산하였으며 축산에도 힘을 넣어 종업원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이 늘 머리를 쓰며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모든 일을 책략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한다면 오늘의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갱목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결함도 있었습니다.

교훈은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을 절사관철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부족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형식주의, 요령주의, 처세술밖에 나올것이 없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우리 사업소앞에는 지난해보다 높아진 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여 화력탄생산을 맡은 탄광들의 갱목을 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림업부문의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체득한 통나무생산의 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겠습니다.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을 빈틈없이 세워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다그치며 물판을 더 많이 조성하여 염소바리수를 대대적으로 늘이는 등 후방토대를 더 잘 갖추겠습니다.

후계림조성사업의 요구에 맞게 작업소마다 자체양묘장을 건설하고 수종이 좋은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하며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제재암살책동에 미쳐날뛰는 적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올해 갱목생산계획을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무조건 완수함으로써 당이 믿고 내세워준 림업부문의 일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혁명적인 총공세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6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력사의 이날을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확철한 사상과 령도로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우리 국가를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은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이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국력강화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대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중앙위원회,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박광호**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로두철**동지, **최부일**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조연준**동지,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정경택**동지, **노광철**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동지가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인 **김정각**동지, **박영식**동지와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룡로자들이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치자》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번혁, 대승리들을 이룩해온 우리 당과 국가의 성스러운 투쟁행로를 승엄히 돌이켜보면서 주체의 붉은 당기를 억세게 추켜들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걸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대회는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이시며 21세기를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광명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고야말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치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6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주체위업계승완성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대경사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를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무진막강한 국력이 힘있게 떨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승리떨쳐온 영웅적투쟁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동지들!

국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며 그것은 나라를 이끄는 령도자가 어떤 사상에 기초하여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지난 6년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출비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이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선 경이적인 나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국가건설업적을 만년토대로 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대강국으로 빛내이실 용지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진두에서 령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천명하시고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여 국력강화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징표와 면모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들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의 국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령도를 이어가시며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는 특대사변들과 자랑찬 성과들을 타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집요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활력있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의 실체가 눈앞에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안겨주고있습니다.

인류정치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같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국력강화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시는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을 천백배로 다져주신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향도해나가는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습니다.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 온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적기능이 백방으로 강화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비롯한 전당적인 대회들을 소집하도록 하시고 기층당조직강화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신것은 당의 전투적위력과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국가령도체계를 확립하시고 국가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억척의 보루로 다져주신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력강화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건설과 국가활동을 철두철미 우리의 일심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시였으며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심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시였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의 활동원칙, 존재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과 뜻과 정으로 맥박치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인 단결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 없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군사적위력과 과학기술적위력, 자립적경제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만리마시대가 태여났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창출될수 있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정치사상적위력이 국력중의 국력으로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강국을 건설해나가시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나라의 과학기술력과 자립적경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십니다.

7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치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6면에서 계속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인 과학기술력과 경제적잠재력은 오늘날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정식화를 주시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습니다.

나라의 국력강화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기풍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과학연구단위와 경제부문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과학기술인재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인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자라나고 지식형근로자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은 세계에 도전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당이 지펴준 첨단돌파전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생산체계들이 확립되고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생산기지들이 일떠섰으며 수많은 단위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경제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습니다.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우리의 과학과 기술, 경제가 세계를 향하여 질주하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사상과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강력한 과학기술력과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으며 자력갱생을 고유한 투쟁방식으로 하고있는 인민의 강용한 기상이 있기에 우리 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솟구쳐오를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동력이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론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육과 보건을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내세우시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데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강국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우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우월한 전민학습체계와 최신과학기술보급의 대전당, 거점들이 마련되여 우리 나라는 명실공히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자랑떨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보건을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보건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세계적수준의 보건시설들이 일떠서고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전국적인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인민들이 의료상혜택을 보다 훌륭히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를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의 상징으로, 주체조선의 국력을 보여주는 3대 전략자산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헌신의 낮과 밤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들에서 인민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지고 물고기대풍, 과일대풍을 비롯하여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희한한 소식이 날마다 전해져 온 나라가 흥성거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 학생소년들과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 로동자들을 위한 궁전같은 학교와 야영소, 현대적인 살림집과 합숙,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우리 조국은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참된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야말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정한 국력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시여 주체조선의 자주권과 강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력한 군력에 우리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성,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방침과 4대강군화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전군에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그 어떤 첨단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자위적국방공업, 혁명공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여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력강화의 길에서 쌓으신 영구불멸의 업적입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종식시키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과 만고의 애국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갈것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조국의 자주적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신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이시며 21세기를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최절정에 세워주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조선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가야 할 중대한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억척불변의 신념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희세의 천출위인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보위하며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과 공화국정권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박력있게 벌려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의 요구대로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부문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진진하는 우리 조국의 위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건설과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및 정권기관의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가장 영예로운 본분으로 여기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의 자그마한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도 남먼저 헤아려 풀어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진정한 인민의 충복,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지울로 삼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과학기술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강국건설구상을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령도가 있고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과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인류의 봄과 더불어 영원할 태양칭송의 찬가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평양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축전무대에는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한 종목들, 여러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민족예술,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펼쳐지게 된다.

사상과 정견,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라도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인류의 봄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예술무대로 뜻깊게 장식하려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열렬한 흠모의 마음들이 대륙과 대양을 넘어 축전도시 평양으로 달려왔다.

서른한번째의 자랑찬 력사를 아로새기며 열리는 이번 축전은 여러 나라의 권위있고 재능있는 예술인들뿐아니라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성악가들도 참가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친선의 예술사절들을 맞이한 수도 평양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룡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개막식장 야외에는 축전기발들이 나붓기고 축전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동평양대극장앞 도로에 도착하자 시안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녀성취주악단의 경쾌한 룡동연주와 화려한 춤바다, 다채로운 교예종목들과 귀여운 어린이들의 재주는 축전개막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개막식장에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부각되어있었다.

《만경대의 노래》의 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무대화면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력사에 깊은 인상을 남긴 예술인들의 공연모습과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화폭들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리념과 커다란 감화력, 견인력으로 자랑찬 발전의 력사를 수놓아온 축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춘남동지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맞으며 열리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소중히 간직하고 축전의 성과적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준 여러 나라 정부와 문화예술계에 사의를 표하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이 태양찬가와 친선의 노래를 년대와 세기를 이어 높이 부르며 문화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대예술축전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화려한 축전무대들에서 해당 나라와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예술적화폭으로 훌륭하게 펼쳐지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그는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평양에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다.

평양체류기간 축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우며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에로 내달리고있는 강대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투쟁과 행복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성대히 진행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조국찬가》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해외동포,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게양하였다.

다음으로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알렉싼드라 뻬르마꼬바 로씨야 옘.예.뺘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단장은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축전이 성대히 개최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간쑤흐 홀지야 불가츄 몽골전군협주단 단장은 협주단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차례 참가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새로운 작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그리움의 세계, 흠모의 정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며 뜻깊은 태양절을 환희롭게 장식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을 경축하여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1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이였다.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실력, 고매한 인덕을 지니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펼쳐가자 신하제일강국》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춤물동을 이어가는 참가자들은 또 한분의 선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것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당의 령도따라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세상을 놀래우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창출하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혈청춘들의 드높은 기상이 《청춘송가》,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등의 노래들에 실리여 박력있는 춤물동으로 펼쳐졌다.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맥박치는 무도회장들에 《인민의 나라》, 《바다 만풍가》, 《일심단결 널리리》, 《사회주의전진가》를 비롯한 노래들이 련이어 울려퍼지며 경축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새로운 위훈을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절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준 무도회들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로 끝났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11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무도회장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 온 나라에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시기에 불세출의 위인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인민의 환희》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아름다운 춤바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경축의 춤물결을 일으켜갔다.

《그 름이 제일 좋아》의 노래에 맞추어 춤물동을 이어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기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태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조선녀성들의 애국의 열정이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 《흥하는 내 나라》의 노래에 실려 무도회장에 차넘치였다.

최세의 선출위인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쳐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무도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전에 개막된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는 《주체산업미술발전의 일대 전성기》라는 주제에 맞게 지난 6년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산업미술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척후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각종 산업미술도안들과 실현제품들, 모형들로 전시되여있었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우리는 어느것 하나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수천점과 수만점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장식도안을 비롯하여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 이바지한 산업미술도안들앞에서도 그리고 지하전동차도안, 80hp뜨락또르도안, 5t급화물자동차도안, 무궤도전차도안 등 공업미술도안들, 배낭식학생가방도안을 비롯한 어린이지 경공업제품도안들과 실현제품들, 모형들앞에서도 참관자들은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전시회장 1층에서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지난 6년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훌륭히 완성된 산업미술도안들의 수자가 밝혀져있는 한 직관선전판이였다.

우리와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던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마크를 감자가 위생모를 쓰고 있는것으로 형상하였는데 멋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사실 그 마크도안은 도안창작에서 만화적인 수법도 적용할데 대하여 주신 그이의 가르치심에서 종자를 잡고 창작한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에 창작된 평양초등학원베스글장식도안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훌륭히 완성된 도안이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산업미술대학 학장은 그 장식도안을 창작하는데서 어떻게 하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세계를 반영하겠는가를 두고 사색을 심화시켰다.

우리 원아들을 사랑의 품마에 태워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우고 싶어하시는 그이의 친어버이정을 동심적인 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학장은 날개달린 룡마를 탄 원아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발을 무지개비낀 하늘로 끌고 달리는 모습을 장식도안에 반영하였다.

평양미술종합대학 산업미술학부 강좌장 김옥경동무도 의상미술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시대적미감을 훌륭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옷의 형식과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치심을 조선옷도안창작에 구현하여 이번에 전통적인 형식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의상도안과 실현제품을 내놓았다.

이들의 창작경험은 모든 창작가들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서 종자를 잡고 속도전을 벌리는것이야말로 오늘날 명도안창작성과를 낳게 하는 비결이라는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있었다.

문명강국의 래일이 보인다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에서 내놓은 2인용눈썰매도안, 잔디깎는기계도안, 평안북도산업미술창작사에서 내놓은 유람직승기도안, 혼련용락구공발사기도안, 황해북도산업미술창작사에서 내놓은 2인용축전지승용차도안도 문명강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도안들이여서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더우기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황해북도인민위원회 부원 리금철동무가 창작한 리대식종합수확기도안이였다. 그 도안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사가 급한 지대, 습한 지대에서도 작업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리대식이동장치가 달려있고 키낮은 작물의 높이에 맞게 자유자재로 회전식가름장치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수확은 물론 정미작업까지도 할수 있게 착상한 멋진 농기계도안이였다.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이룩한 그 소중한 성과도 우리에게는 로동이 그대로 흥겨운 노래로 되는 사회주의농촌의 밝은 래일로 안겨왔다.

만수대창작사에서 내놓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장식물도안들도 해안지대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고기와 조개, 돛배의 각이한 모양으로 장식적효과를 잘 살려 금시라도 해풍이 부는 바다가에 우리들자신이 서있는듯한 상쾌감을 더해주었다.

전시회장의 2층에 전시된 이모든 도안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곧바로 질풍같이 달려나갈 때 문명강국의 래일은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것을.

전시회장에서 그려보는 문명강국의 래일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았다. 그 래일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확신은 밀물처럼 우리모두의 심장으로 끝없이 흘러들었다.

※ ※

전시회장의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고 전시회장을 나서는 참관자들의 모습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더 빨리 이 땅우에 안아올 그들의 드높은 신심과 혁명적열정을 다시금 가슴뻐치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백성근

동림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아서

절절한 그리움 꽃송이들마다에 담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 때 우리 나라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불멸의 꽃들이 활짝 피여나고 있는 동림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았다.

온실은 전국에 소문이 날만큼 안팎으로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재배공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해전까지만 하여도 이들속에는 꽃재배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배운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동림땅에 더 아름다운 태양의 꽃바다를 펼쳐놓겠다는 각오와 열의를 안고 지배인과 재배공들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이악하게 재배기술을 습득해나갔다.

불멸의 꽃재배와 관련한 도서들을 한장한장 번지며 밤을 지새웠고 꽃재배를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열띤 토론도 하면서 기술학습을 심화시켜나갔다.

한편 평양에 올라가 전문가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수많은 단위들을 돌아보면서 자체실정에 맞는 방도를 탐구해냈다. 재배공들의 기술수준은 한해가 다르게 높아져 그들이 키워내는 꽃송이들은 하나같이 크고 소담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배인은 태양의 꽃을 키우는 온실을 더 환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몇년전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온실개건전투가 벌어졌다.

이들은 불멸의 꽃재배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를 잘해나가는 한편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도록 건설의 질을 높여나감으로써 온실의 면모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신시켜놓았다.

언제인가 온실에서는 지금껏 먼곳에 가서 실어오던 꽃재배에 필요한 많은 부엽토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그날 지배인은 가까이에 있는 산을 거꾸어 부엽토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가자는것은 당의 숭고한 뜻이다. 태양의 꽃들을 키워가는 우리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자신심에 넘쳐 말하는 지배인의 호소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이들은 키낮은 잡판목들만이 자라던 산에 땀방울을 묻으며 몇해동안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이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 이들은 오늘날 무성해진 수림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부엽토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그리고 땀흘리며 가꾼 과수밭에서는 사과, 배가 주렁주렁 달리고 과일나무밑에서는 고구마를 수확하고있으며 축산과 양어는 물론 남새도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있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충정의 열도는 더욱 높아갔다.

올해초 지속되는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불멸의 꽃들을 키우는 사업은 어려운 전투를 동반하였다. 모두가 온실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 한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하였고 발동발전기를 돌리면서 불멸의 꽃들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지마다 등을 떠밀었지만 열관리공인 최정현동무는 현장에서 주사를 맞으며 초소를 뜨지 않았다.

이런 충정의 마음에 받들려 펼쳐진 태양의 꽃바다였다. 그나날 이들이 또박또박 적어넣은 온습도관리일지들을 우리는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이들이 남모르게 맞고보낸 헌신의 날과 달의 그 모든 사연들이 가슴뜨겁게 어려와서였다.

지배인 김동일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사는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까지 함쳐 사시장철 태양의 꽃들을 활짝 피우겠다는 불타는 심장이 있어 이런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일편단심 충정을 바쳐가는 이들과 같은 참된 인간들이 많고많아 내 조국땅 어디서나 태양의 꽃들은 영원히 만발하리라.

본사기자 김명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련방 외무상사이의 회담진행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동지와 페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외무상사이의 회담이 10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상대측에서 외무성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호혜적인 선린협조관계를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담에서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로씨야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화애호적립장과 결단에 의하여 최근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와 정화의 분위기가 마련된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리용호동지는 이에 앞서 9일 니콜라이 빠트루쉐브 로씨야련방안전리사회 서기장을 만났다.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위원장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알렉세이 꼬지쯔끼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위원장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또한 위원장일행은 조선혁명박물관, 주체사상탑, 류원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해방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소식

우리 나라의 4.25팀이 중국 마카오의 벤피카 마카오팀을 8:0으로 이겼다

【평양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있다.

9조에 속한 4.25팀과 벤피카 마카오팀사이의 1차경기가 11일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팽팽 선수들은 적극적인 공격을 들이대면서 득점기회를 노리였다.

팀의 전술적의도를 살리면서 정확한 공련락과 빠른기, 좌우측면에 의한 돌파로 상대방문전을 위협하던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 13분경 첫골을 넣은데 이어 20분경에 또다시 득점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경기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적극적인 공격을 들이대던 우리 선수들은 련속 6개의 골을 성공시켰다.

결국 경기는 4.25팀이 벤피카 마카오팀을 8: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제20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중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제20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왕해부 중국연변혁교상무유한공사 총경리와 일행, 왕문일 중국단동신보과학기술유한공사 리사장과 일행, 최룡호 평양과학기술대학 공동운영 부총장과 일행이 11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연변혁교상무유한공사 총경리와 일행

중국단동신보과학기술유한공사 리사장과 일행

평양과학기술대학 공동운영 부총장과 일행

영원불멸할 태양의 존함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자주시대의 정의와 승리의 상징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존함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그것은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여온 수많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며 진보적인류는 태양절을 커다란 격정속에 경축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리념을 위하여 투쟁하신 혁명가의 귀감이시다.

그이의 혁명활동력사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을 백전백승에로 이끄신 성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애국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쌓으신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며 그이의 존함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선인민은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였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높은 세계적권위와 영향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시였다, 그이의 혁명생애는 인류사에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우시였다.

그이는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ㄱ-81058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